

# 西歐型 내셔널리즘과 非西歐型 내셔널리즘과의 比較論的 研究

李 永 澤

## A Comparative Study on the Western and non-Western Nationalism

by

Lee, Young-Taek

### 目 次

- |                            |                  |
|----------------------------|------------------|
| I. 緒 言                     | 1. 西歐내셔널리즘의 發現   |
| II. 내셔널리즘의 概念上的 比較         | 2. 非西歐내셔널리즘의 發現  |
| 1. 내셔널리즘의 概念의 多義性          | i) 〈非西歐〉의 一般의 特性 |
| 2. Patriotism과 Nationalism | ii) 非西歐내셔널리즘의 發現 |
| 3. 客觀說과 主觀說                | IV. 結 論          |
| III. 내셔널리즘의 發現上的 比較        | 參考文獻             |

### Abstract

Of the importance of the study on nationalism, there can be no doubt in this world of nation-states and in this age of global nationalism. As an emotion, sentiment or concept, nationalism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our daily lives.

Nationalism, in modern sense, emerged in England of the later seventeenth-century, spread throughout the Western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by the twentieth century penetrated into the other non-Western backward world, awakening new national consciousness of its inhabitants. However, the nationalism which emerged in the non-Western backward society could not be the same one which emerged in the progressed Western socie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on-Western nationalism has its own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Western one in their general conceptions and origins of

those two patterns of nationalism, since it emerged, based on its own cultural grounds, conditions, and situation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one.

## I. 緒 言

現代世界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이 차지하는 重要性을 強調하기 위하여 노벨平和賞受賞者 Norman Angell의 아래의 말은 흔히 引用된다. 즉 <政治的 내셔널리즘은 現代의 유럽人에게는 世界에서 가장 重要한 것으로 되었다. 文明 보다도, 品位 보다도, 仁愛 보다도, 敬神 보다도, 生命 그것 보다도 더 重要한 것으로 되었다.><sup>1)</sup> 이 말은 그가 1932년에 西歐의 내셔널리즘에 關하여 論評한 것 이거니와, 그 中에서 <政治的 내셔널리즘>과 <現代의 유럽人>의 部分만 修正된다면 그의 말은 20世紀末의 오늘날에 있어서 오히려 더 妥當性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오늘날 내셔널리즘은 다만 政治的 領域 뿐만 아니라 人間生活의 모든 領域을 包括하고 있으며, 내셔널리즘은 人間의 宗教·藝術·科學까지를 包含한 모든 活動을 解釋하는 第一原理로 되었다. 人間存在의 窮局的 意味까지도 내셔널리즘의 文脈內에서 理解되어야 하겠끔 되었다고 하겠다. 또 내셔널리즘은 비단 유럽人 뿐만 아니라 거의 全人類의 規模에 있어서 世界에서 가장 重要한 것으로 될 것이다.

近代의 意味에 있어서의 내셔널리즘은 元來 西歐社會에서 發源하여 프랑스大革命과 나폴레옹 戰爭을 거쳐 19世紀에 이르러서는 全유럽에 波及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19世紀末에 이르러서는 아시아·아프리카의 非西歐地域에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觸發하여 20世紀 오늘날에는 西歐에서 보다는 오히려 아시아·아프리카地域에서 더 強烈한 힘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그 內容에 있어서도 西歐내셔널리즘과는 다른 特徵과 課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現代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이 갖는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내셔널리즘 만큼 錯雜하고 漠然한 內容을 갖는 것도 드물다 할 것이다. 그것은 내셔널리즘이 近代以來의 歷史的 產物인 同時에 歷史的 推進力으로서 그 意味內容 그 自體가 時代에 따라 地域에 따라 變하여 왔고 또 變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可變的인 對象에 對한 研究方法에 있어서도 내셔널리즘 一般을 一括하여 固定不變의 것으로 다룰것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을 各地域 마다의 獨自的인 歷史的 過程의 成果로 보고 特殊具體的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가령, 英國, 프랑스, 인도, 中國, 이란, 日本 등의 내셔널리즘으로) 그러나 이러한 特殊具體的인 研究方法 그것 만으로서는 世界史의 視野에서의 理解를 妨害하기 쉬우며, 따라서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特殊具體性도 理解할 수 없게 된다. 特殊具體性은 普遍性과 矛盾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고 相關關係에 있으며 普遍性과의 關聯에 있어서 特殊具體性은 비로소 意味를 갖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特殊具體性과 普遍性의 兩極의 中間的 立場에서 世界의 모든 내셔널리즘을 西歐社會(英國,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1) Louis L. Snyder(ed.); The Dynamics of Nationalism, 1964 D. van Nostrand Co., Princeton, N. J. p. 1

美國)의 내셔널리즘과 非西歐社會(中歐, 東歐 및 아시아·아프리카)의 내셔널리즘으로 두 根本的 類型으로 分類하여 比較考察하되, 非西歐내셔널리즘에 對해서는 主로 廣義의 아시아를 考察의 對象으로 限定한다. 實로 <世界史>는 이 두 類型의 내셔널리즘을 中心軸으로 成立되었으며, 近代以後의 世界史는 이 두 類型의 相互接觸에 依한 展開過程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小稿의 目的은 現代史에 있어서 叙上한 바와 같은 重要性을 갖는 내셔널리즘을 西歐型과 非西歐型의 두 類型으로 分類하여 이 兩者의 比較考察을 通하여 特히 非西歐내셔널리즘의 特徵과 課題를 究明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錯雜한 意味內容을 갖는 多面體的 總體를 比較함에 있어서는 여러 視角으로부터 그 比較가 試圖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내셔널리즘의 概念과 내셔널리즘의 發現(Origin)의 두 側面으로부터 두 類型의 내셔널리즘을 比較하려고 한다. 이 두 側面을 比較의 視角으로 잡은 理由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내셔널리즘의 概念이나 本質의 究明은 내셔널리즘에 關한 어떠한 研究에 있어서도 비록 내셔널리즘 그 自體의 意味內容의 可變性으로 因하여 그것에 對한 完全한 定義는 거의 不可能할지라도 研究考察의 順序上으로도 一은 반드시 거쳐야 할 前提의 作業이며, 뿐더러 내셔널리즘의 概念에 對한 一般의 理解에 있어서도 西歐와 非西歐 사이에는 差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로 내셔널리즘의 發現(Origin)을 比較의 視角으로 잡은 理由는 이 問題속에 發生의 時期, 基盤, 條件, 發展 等 廣範圍한 問題들이 內包되어 있으며, 이 發現의 比較를 通하여 特히 非西歐내셔널리즘의 特徵과 課題를 究明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Ⅱ. 내셔널리즘의 概念上的 比較

### 1. 내셔널리즘概念의 多義性

西歐型과 非西歐型의 내셔널리즘과의 比較를 目的으로 하는 이 小考에서도 一은 내셔널리즘의 概念에 對한 豫備的 考察이 先行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斯界의 權威者인 C. J. H. Hayes도 <...많은 學者들이 이 問題에 손을 댔음에도 不拘하고 Nation 또는 Nationalism의 本質 및 그 歷史에 關한 길은, 그리고 體系的인 研究는 어떠한 國語에 依해서도 하나도 成就되지 못 하였다.><sup>2)</sup> 고 말하였거니와 누구나가 다 納得할 만한 定義를 내릴 수 없다는 事實 그 自體가 어느 面에서는 내셔널리즘의 本質의 一端을 말하여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 逆說의 일지 모르나 내셔널리즘의 概念規定의 困難性이 무엇에 起因하는가를 問題삼아 그 本質을 알아 보기로 한다.

내셔널리즘의 概念規定의 困難性은 社會的 意思疎通의 手段인 言語 그 自體가 갖는 限界性에 있음은 勿論이고 첫째로 Nation 또는 Nationalism라고 하는 單語 그 自體가 갖는 內容의 多義性

2) C. J. H. Hayes:Essays on Nationalism, 1926. (N. Y.) p. 2.

에 起因한다. 같은 Nation이란 말로 〈國家〉, 〈國民〉, 〈民族〉, 〈人民〉等 여러가지로 翻譯되며 이에 따라 Nationalism도 〈國家主義〉, 〈民族主義〉, 〈人民主義〉로 多樣하게 翻譯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各地域의 相違한 歷史的 經驗에 따라 相違한 語感을 준다. 가령 그것을 〈國家主義〉로 翻譯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第二次大戰時의 파시즘의 戰爭이데올로기의 語感을 준다. 우리 나라에서 〈民族主義〉는 日帝의 壓制로부터의 解放·獨立·自由 等の 肯定的·鼓舞的 印象을 喚起시키지만, 日本에서 民族主義를 云謂할 때 그것은 戰前의 軍國主義의 復活에 對한 疑惑을 낳게 한다.

스위스에서는 佛語, 伊語, 獨語와 一部の 로마니쉬語를 使用하는 사람들로서 構成되며 憲法에서도 이 言語를 民族語로서 認定하고 있는데 스위스 Nation을 스위스〈國民〉이라고 않고 스위스 〈民族〉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쩐지 어색하다.<sup>3)</sup> 〈民族〉이라는 概念은 多分히 生物學的 內容을 갖는 概念으로서 血緣이라는 自然的 共同性위에 이루어진 集團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또 Nation이 國土, 祖國을 뜻하는 〈Country〉와 同意語로 使用될 때 Nationalism은 〈Patriotism〉(愛國心·祖國愛)과 同意語로 解釋되지만 兩者의 뜻은 全的으로 同一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語에 있어서 Patriotisme과 Nationalisme이 주는 語感은 前者는 肯定的인 뜻을, 後者는 否定的 非難의 뜻을 內包한다. 獨逸 〈Nationalismus〉나 日本의 〈愛國心〉은 적어도 戰後의 얼마동안은 戰前의 나치즘이나 帝國的 軍國主義를 聯想케 하는, 프랑스의 語感和 正反對의 語感을 內包한 單語였다. 英國에서 Nation은 〈People〉, 〈Popular〉, 〈Democratic〉와 同意語이며, 獨逸에서 〈National〉이란 말은 情緒的인 뜻을 內包하여 自己의 國家를 갖는 強力하고 高度로 開化된 偉大한 民族(Volk)이라는 印象을 준다.<sup>4)</sup>

또 내셔널리즘의 概念規定의 困難性은 意味論上의 問題에 起因한다. 즉 日常的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는 單語나 言語가 使用者間의 誤解나 不當한 用法에 依한 本來的 意味의 歪曲으로부터도 起因된다. 例컨대 〈Democracy〉란 말은 自由主義國家에서나 共產主義國家에서나 널리 使用되고 있지만 自由主義國家에서 볼때 共產主義國家의 Democracy란 〈全體主義〉를, 共產主義國家에서는 自由主義國家의 그것을 〈부르조아지 獨裁〉라고 부른다. 〈Democracy〉가 〈Nationalism〉과 結合되었을 때 그것의 意味內容은 더욱 큰 概念上의 混亂을 惹起한다.

내셔널리즘의 概念規定의 困難性은 무엇보다도 내셔널리즘의 意味內容 그 自體가 歷史的 發展에 依하여 不斷히 變化하고 있다는 事實에 起因한다. 네이션 혹은 내셔널리즘은 〈不斷한 歷史的 흐름속에 있는 現象으로서, 이를 把捉하여 概念化하려는 試圖가 다 그걸 것처럼 學問的 作業中 가장 어려운 作業에 屬하는 것〉<sup>5)</sup> 이기 때문이다. Nation의 本質 그 自體가 不斷히 流動變

3) 白井二尚; 民族發達の諸段階, 哲學研究 第362號, 1947. p. 2

〈스위스인이 國民으로서의 네이션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도 認定하지만 스위스인이 民族으로서의 네이션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적다.〉

4) Nationalism; A Report by A Study Group of Royal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Affairs, 1939. preface.

5) Geor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S. 117.

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 世界經濟調査會編, 昭和 32年 p. 610에서 再引用

轉하는 歷史的 過程속의 現象으로서 決코 靜止的, 固定的인 것이 아니고 運動的인 다이나믹한 事實에 起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이션 또는 내셔널리즘이 갖는 이데올로기의 內容은 地域에 따라 時代에 따라 반드시 같을 수 없으며, 同一地域內에서도 時代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Hayes는 西歐內에서도 18世紀의 人道主義的, 자코빙的, 傳統主義的 내셔널리즘, 19世紀의 自由主義的 내셔널리즘, 20世紀의 全體主義的(Integral)내셔널리즘이라고 區別하였으며,<sup>6)</sup> 같은 獨逸에서도 Fichte의 내셔널리즘과 Hitler의 그것, 또 戰後의 西獨의 내셔널리즘은 確然히 區別될 것이며, 英國의 내셔널리즘과 新生 아시아·아프리카의 그것은 또 다를 것임은 分明하다.

以上은 내셔널리즘의 本質이나 概念의 究明이 얼마나 어려운 作業인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거나, 同時에 그것은 내셔널리즘의 本質의 一面과 내셔널리즘에 對한 研究方法를 暗示하여 주기도 하는 것이다. 즉 내셔널리즘은 固定的 靜止的 對象이 아니고 時間·空間的으로 그 意味內容을 달리하는 可變的·流動的인 對象이며 따라서 그것을 歷史的 發展의 過程 그 自體속에서 把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最近에 歷史學 以外에도 社會學, 政治學, 經濟學, 心理學, 精神分析學 및 精神醫學 等の 많은 特殊專門分野에서 내셔널리즘을 研究하고 있으나<sup>7)</sup> Hayes도 指摘한 바와 같이 歷史的 方法이 가장 重要視되는 理由는 내셔널리즘이라는 研究對象의 歷史的 性質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sup>8)</sup>

## 2. Patriotism과 Nationalism

비록 위와 같은 理由로 내셔널리즘의 概念에 對한 定義는 至極히 어려운 作業이기는 하나 내셔널리즘과 흔히 混同하기 쉬운 다른 類似한 概念, 例컨대 Patriotism, Tribalism, Volk와의 異同을 比較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의 本質에의 端緒를 얻을 수도 있다.

Patriotism은 普通 〈愛國心〉, 〈祖國愛〉로 翻譯되나 Nationalism과는 次元이 다른 概念이다. Patriotism은 元來 〈自己的 鄉土나 或은 그가 所屬하는 原始的 集團에의 愛情이며……모든 種類의 人間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感情〉<sup>9)</sup>으로서 悠久한 人間의 歷史를 通하여 모든 人種·民族이 품고 있는 普遍的인 自然生得的인 感情이지, 내셔널리즘 처럼 어느 特定한 歷史的 段階에 비로소 나타난 새로운 理念은 아니다. R. Michel은 이러한 Patriotism의 心情을 〈鍾樓의 Patriotism〉(Glockenturm Patriotismus)라고 命名하였거니와, 그것은 어린 時節에 뛰어 놀던 그리운 故鄉山川에 對한 愛情, 즉 鄉土感情(Homefeeling, Heimatliebe)인 것이다. 그런데 人間의 이 原始的인 鄉土愛로서의 Patriotism은 그것대로 곧 바로 國家에의 愛情이나 一體感으로 直結되는 것은 아니다.

6) C. J. H.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6th ed., 1959. (N. Y.) pp. 16—17, 52—54, 56—57, 87, 88, 120, 135, 165—166.

7) Louis L. Snyder; The Meaning of Nationalism, 1954. (New Brunswick, N. J.) pp. 74—84.

8) Hayes도 歷史學以外的 特殊專門科學의 成果와 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歷史的 方法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Cf. Hayes; Nationalism—A Religion, 1963 Macmillan, A Personal Aology. p. vi

9) Elie Kedourie; Nationalism and Certain Ideas in the Philosophical Tradition of Europe, 1960(N. Y.) p. 74.

〈故郷〉은 그대로 〈祖國〉과一體化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郷土感情은 많은 경우에, 가장 즐겁고 詩的인 人間感情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음은 分明하나, 그러나 이러한 鍾悽의 Patriotism은 大規模의인 樣式을 갖는 國家愛와는 決코 論理的인 연결을 갖는 것은 아니다. 태어난 故郷에의 사랑은 祖國에의 사랑을 包含하는 것은 아니다. 後者는 본 적도 없고 따라서 幼年期的 아무런 追憶에 依해서 結合되지 않는 都市나 마을의 모든 것을 包含하기 때문이다. ><sup>10)</sup> 또 Patriotism과 Nationalism은 그 愛情의 對象이되는 地域이 다르다. 前者는 사람들이 具體的인 日常生活에 있어서 늘 感覺的으로 體驗할 수 있는, 즉 視野가 미칠 수 있고, 별 困難없이 그 範圍內를 來住할 수 있는 比較的 좁은 領域이며, 그 領域안에서 生長한 사람들이 서로 密接한 日常的 接觸을 通하여 깊은 愛情으로써 結合될 수 있는 比較的 좁은 地域 즉 〈郷土〉(Heimat, Home country)이다. 이에 對하여 後者는 日常의 生活에 있어서의 具體的 體驗만으로써는 實感할 수 없는 廣大한 抽象性을 띤 比較的 넓은 地域이며, 이 地域內의 사람들도 直接的인 人格的 接觸에 依해서 結合되기는 不可能한 〈祖國〉이나 〈國土〉(Vaterland, National territory)이다. 이와같은 Patriotism과 Nationalism의 愛情의 對象地域의 廣狹의 差異는 愛情의 性質에 있어서도 다르다. <“Patriotism”과 Nationalism은 重疊된 뜻을 갖지만 同一한 것은 아니다. 前者는 “郷土愛”의 語感을 가지며 主로 自己들이 태어났고 또 살고 있는 土地에 對한 愛情을 中心으로 한다. 그 땅은 都市나 시골이나 或은 고향이지, 오늘날 意味하는 統一國家임을 必要條件으로 하지 않는다. 또 愛情의 對象이 되는 땅의 擴張이라는 欲求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護持에 力點을 둔다. ……이에 反하여 “Nationalism”은…… 居住地에의 愛着을 반드시 中心에 두지 않고, 民族의 國家에의 集中, 統一, 即 自主獨立의 民族國家의 形成을 志向하며, ……國家 그것에의 忠誠이 他의 여러 價値에의 忠誠을 否定하고 或은 自己에 同一化하는 傾向을 보인다.><sup>11)</sup> 이와같이 郷土愛的인 感情인 Patriotism은 人間의 生長과 더불어 自然的으로 培養된 本能에 가까운 愛情인데, 〈國土〉에의 愛着은 보다 더 人爲的이며 後天的인 것이다. 郷土愛가 有機體的 成長이라는 性格이 強한데 反하여 國民感情은 世論의 힘, 教育, 文學作品, 新聞, 雜誌, 歌謠나 史跡 등을 通하여 우리 마음속에 移植된 人爲的으로 形成된 것이다.<sup>12)</sup>

社會學者는 郷土愛(Patriotism)와 내셔널리즘을 區別하여 前者를 第一次의 集團感情, 後者를 第二次의 集團感情이라고 命名하거나, 兩者는 各其 그 形成過程에 있어서나 性格에 있어서나 判異하게 다른 次元에 屬하는 感情이다. 그럼에도 兩者는 때로는 矛盾排斥하면서 때로는 微妙한 共棲關係에 있다. 이에 關하여 Seligman은 <健全한 내셔널리즘은 地方的인 이 愛着心(Patriotism—筆者)을 有効한 平衡力으로서 利用한다. 왜냐하면 이 感情은 攻撃的·擴張的인 性質의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防衛的·集中的 내셔널리즘을 助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10) Roberto Michels; Der Nationalismus, Prolegomena zu seiner soziologischen Analyse, 1929(München)S. 88.

11) 桑原武夫; フランス革命의 研究(岩波), 1970. 第一章參照

12) F. Fertz; Nationality in History and Politics, A Study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ety of National Sentiment and Character, 1944(N. Y.), p. 51

感情은 地方分權化에의 傾向을 가지며, 또 文化的 要素나 어떤 型의 平和主義를 強調하는 故로 大國을 志向하는 政治的 內셔널리즘 運動의 立場에서는, 이 地方主義的 或은 聯邦主義的 傾向은 危險視된다. 事實, 國民感情을 地方的 範圍로 限定시킨다면 마침내는 廣範圍한 國家統一은 解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3)</sup>라고 指摘하였듯이 鄉土愛는 國土愛인 Nationalism에 依해서 때로는 〈地方主義〉로서 排斥되고 때로는 利用되는 關係에 있다. 그리고 이 微妙한 共棲關係가 內셔널리즘과 Patriotism과를 混同케 하는 理由 중의 하나인 것이다.

### 3. 客觀說과 主觀說

Nationalism의 核心概念인 Nation(民族·國民)의 本質에 對한 수 많은 見解들의 〈密林〉속에서 또 이들을 大體로 主觀說과 客觀說로 二大分類할 수 있는데, 同時에 이 두 基本的 立場은 內셔널리즘에 對한 西歐的 見解와 非西歐的 見解와를 區分하는 基準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客觀說은 Nation(民族·國民)을 構成하는 要因으로서 人種·地域·言語·宗教·政治的 或은 經濟的 環境 等の 客觀的 要因을 重視함을 말한다. 主觀說은 〈Nation〉의 本質的 要因으로서 心理的·情緒的 要素를 重視하고 Nation을 하나의 心理的 統體로 보는 立場을 말한다. 이곳에서 두 學說의 適否의 詳論은 避하겠으나 結論적으로 分明한 것은 上記한 客觀的 要素는 Nation을 構成하는 基本的인 質料이지만, 客觀的 要素의 數個 或은 全部의 結合 또는 그 總和가 곧 Nation을 構成하는 必要充分條件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령 美國民은 〈人種의 도가니〉이며, 스위스 國民은 四個의 다른 言語를 가지며,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같은 祖上을 가지며 거의 같은 말을 使用하지만 다른 國民인 것으로도 分明하다. 또 主觀說에 있어서도 上記한 客觀的 諸要素 中の 어느 한 가지를 共有함이 없이 어떤 人間集團이 共同意識을 갖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다만 觀念적으로 心理的 要因을 強調하는 主觀說도 不當한 것이다. Nation(民族·國民)은 血緣·地緣·言語·宗教·慣習 및 歷史的 經驗 等等的 客觀的 要素의 一部 或은 全部를 共有한 一定한 人間集團의 成員의 全部 或은 多大數가 같은 共同體에 共屬하며 未來에도 같은 運命을 共有한다는 自覺을 한 一定한 集團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므로 Nation(民族·國民)은 上記한 容觀的 要素를 要件으로 한 精神—心理的 實在인 것이다. 容觀說만도 아니고 主觀說만도 아닌 主—客觀說의 立場에서 볼때 Nation(民族·國民)은 民族〈意識〉속에 存在한다. 民族과 民族意識의 先後問題에 있어 民族意識이 民族 보다 先在하는 것이다. 〈民族이 있은 然後에 民族意識이 있는 것이 아니고 民族意識속에 民族이 있으며, 스스로 民族임을 自覺하는 集團이 民族〉<sup>15)</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客觀說에 立脚한 Nation의 概念은 大體로 非西歐地域에서 強하며, 主觀說 或은 主—客觀說의 Nation의 概念은 大體로 〈西歐〉에서 強한 듯하다. 말하자면 〈西歐型〉의 內셔널리즘은

13) Seligman (ed.): E. S. S. Nationalism, 橋川文三; ナショナリズム—その 神話と論理, 1968, 紀伊國屋新書 p. 20에서 再引用

14) Rupert Emerson; From Empire to Nation, 1962(Harvard) p. 95

15) Oppenheimer; System der Soziologie, I band. S. 644  
上掲書 ナショナリズム의 研究 p. 613에서 再引用

主觀說에 立脚하고 있는데 非西歐型的 내셔널리즘은 客觀說에 立脚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事實은 비록 統計學的 資料에 依하여 立證될 수는 없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그만큼 歷史的 理由가 있다. 그 歷史的 理由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全般에 걸친 非西歐地域의 後進性에 基因한다.

西歐에서도 實體的 概念으로서의 民族의 社會集團인 <Volk>(民族以前的 潛在的 集團)은 古代·中世 以來 近世까지 存續하여 왔다. <Volk>는 中世의 身分의 封建時代의 한 集團으로서 그 內部에 上層과 下層 間의 커다란 社會的 斷層으로 因하여 各成員의 共同體의 一體感이 不充分하였으며, 橫의으로는 各地의 封建領主의 自給自足的이고 孤立封鎖의인 莊園內에 居住하던 人口의 多大數를 차지한 農民은 그 地域마다 固有한 特殊性과 保守性을 強하게 保持하였던 故로 보다 더 큰 規模의 民族共同體라는 意識은 아직 未發達의 段階에 있던 集團이다.<sup>16)</sup> 따라서 Volk는 Nation이 아니며, Volk的인 共屬觀念은 보다 더 普遍的이고 抽象的 意志인 내셔널리즘에 보다 는 牧歌的인 鄉土愛로서의 第一次의 集團意識, 즉 Patriotism에 더 가까운 原始的 意識이다.

어느 意味에서 西歐의 中世로부터 近代에로의 發展이란 Volk가 自己의 地域的·階層的 諸障壁을 스스로 打破하고 <Nation>이라는 統一의 共同體 즉 <民族國家>(Nation-State)를 確立하여 가는 過程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Volk의 地域的·階層的 諸障壁을 打破한 것은 資本主義經濟와 人民主權思想 및 <第三階級>의 힘이었다. Nation이란, 未發達의 潛在的 民族으로서의 Volk가 中央集權的國家의 成立, 民主主義의 發達 等に 依하여 自覺의으로 된 國民을 말한다.<sup>17)</sup> <우리>라는 同胞意識과 <우리 集團>으로서의 民族을 그 成員의 全部 或은 多大數가 積極의으로 支持하리는 自覺的 意識이 Nation의 特質이다. A. Vierkandt의 말을 빌리면 <感情 Gemeinschaft>로서의 Volk가 <意志 Gemeinschaft>에로의 自覺的 發展을 遂行하였을 때 비로소 Nation은 成立하는 것이다.<sup>18)</sup>

이와같이 西歐의 내셔널리즘의 發生 그 自體가 近代化에의 歷史的產物이었다. 이에 反하여 近代化에로의 歷史發展을 늦게 始作한 非西歐地域에서의 내셔널리즘에 對한 一般的 觀念은 아직 Volk的인 觀念, 第一의 集團感情으로서의 牧歌的인 鄉土愛(Patriotism)로부터 脫皮하지 못한 段階에 있다고 하겠다. 非西歐地域에 있어서는 血緣·地緣·言語·慣習·等の 客觀的 要素에 바탕한 多分히 情緒的이고 生物學的 意味를 갖는 <民族>이라는 概念은 理解되기 쉬워도, 多分히 抽象的 이고 理念的인 內容을 갖는 <國民>의 概念은 生疎하다. <民族>의 <國民>에로의 昇華는 經濟的 近代化와 더불어 非西歐 내셔널리즘의 課題인 것이다.

萬若에 客觀說에 내셔널리즘이 立脚한다면 過去志向의이고 情緒的인 性格을 띠기 쉽다. 共同의 祖上·言語·歷史的 經驗 等の 自然的 共同性의 強調에 依한 情緒的인 呼訴力은 團合을

16) 白井二尙; 上掲書 p. 24.

17) Boyd C. Shafer; Nationalism, Myth and Reality, 1955(N. Y.) Chap. v. vi.

18) A. Vierkandt; Gesellschaftslehre, zwei Auf, 1928. S. 426.

社會學 第五卷 民族と國家; 東京大出版會. 1970, p. 20에서 再引用



爲하여 有效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過去志向의 傾向은 社會的·政治的 現實에 뿌리 박지 못하고 過去의 神話나 未來에의 꿈에 連結되어 現在와의 直接的인 連結을 避하기 쉽기 때문에 確固한 國民意識에 對한 自信力을 欠하기 쉽다. 客觀說에 立脚한 내셔널리즘에 있어서 Nation의 概念은 文化以前의 非合理的인 Volk를 中心으로 한 民族共同體(Volksgemeinschaft)라는 有機體的全體로서 看做되기 쉽다. 이 有機體的全體로서의 Nation 觀에서는 權利와 義務의 主體로서의 自覺은 發生하기 힘들며 따라서 近代의 國民意識의 自發性도 期待하기 어렵다.

客觀說에 立脚한 내셔널리즘의 副作用과 내셔널리즘의 概念의 再檢討의 必要性에 對하여 趙璣濬教授의 아래의 말은 適切하다고 생각한다.

〈萬若에 民族主義를……에 對한 民族을 共通된 言語·習俗·血統·文化傳統을 가진 하나의 集團으로 파악하고 民族主義를 그 集團의 共同利益을 防衛·確保하기 위한 政治的인 슬러건으로 생각할 경우, 民族主義가 가져오는 副作用은 크다. 그 경우 民族이란 이름 아래 對內的으로는 民族 안의 階層間의 不平等이나 社會的인 矛盾이 은폐될 수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他民族에게 侵略行爲도 合法化될 수 있게 된다. 나치즘이나 파시즘 또는 戰前에 있어서의 日本의 軍國主義는 그 좋은 예를 보여 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過去의 일 만은 아니다. 二次大戰以後 世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新生民族主義속에서도 그러한 위험요소는 얼마든지 發見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歷史的인 產物로서의 民族主義의 개념을 再檢討할 必要性이 있게 된다.〉<sup>19)</sup>

### Ⅲ. 내셔널리즘의 發現上의 比較

#### 1. 西歐내셔널리즘의 發現

위에서 내셔널리즘의 本質이나 概念에 對한 一般的인 理解에 있어서 西歐型과 非西歐型이 있으며, 그러한 差異는 두 類型의 내셔널리즘을 發現케 한 歷史的인 基盤과 發現의 形式의 差異에서 起因하는 것임을 示唆하였다. 또 위에서 Volk와 Nation, Patriotism과 Nationalism은 類似한 概念이면서도 次元을 달리하는 概念임을 論하였거니와, 이를 換言하면 내셔널리즘은 近代의 歷史發展의 結果로 發現된 近代의 意識·理念 및 運動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런데 近代의 意味에 있어서의 내셔널리즘이 完全한 實踐形態로 全유럽의 規模로 發現된 時期는 프랑스大革命 부터라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sup>20)</sup> 그러나 그 보다 1世紀以前인 17世紀에 近代의 내셔널리즘의 最初의 發現은 英國에서 發見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章에서는 近代의 意味의 내셔널리즘의 祖型(proto-type)이며 西歐型 내셔널리즘의 正統이 되는 英國내셔널리즘이 어떠한 歷史的인 基盤 위에서 어떻게 發現되었는가를 考察의 主對象으로 삼되, 非西歐의 내셔널리즘과의 比較를 意識하면서 論述하기로 한다.

19) 趙璣濬; 韓國民族主義의 課題, 新東亞, 1973年 9月號 pp. 122-123

20) 이러한 一般的인 見解에 反對하는 意見도 있다. 가령 獨逸民族의 形成期를 9世紀 中葉으로부터 10世紀初에 걸친 數十年間으로 보는 說도 있다. Cf. 上原專祿; 民族의 歷史的인 自覺, 昭和28年, 創文社, pp. 11~16.

政治的 내셔널리즘은 近代的인 民族國家(a Modern Nation-State)의 創建 및 그 維持發展을 위한 理想이나 原理, 그 過程이나 運動의 全體라고 一旦 規定할 수 있다면, 中央集權的 統一國家(即 國民的 國家:National-State)의 先在가 近代的인 民族國家(Nation-State)에의 準備過程으로서 有利한 條件이 된다.<sup>21)</sup> 그런데 英國은 이미 中世紀부터 近世初에 걸쳐 유럽 中世의 〈普遍世界〉로부터 宗教的·政治的 分離를 完遂하여 言語·政治·經濟·宗教 등의 諸要素를 共有한 集團을 基盤으로 한 中央集權的 統一國家의 틀을 完成한 最初의 國家였음은 注目할 事實이다. 即 英國은 이미 完成된 集權的 統一國家의 틀 안에서 國內의 宗教的·政治的·經濟社會的 諸問題의 改善에 만 專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섬나라라는 地理的 條件은 大陸(유럽)과의 紛爭의 渦中에 휩쓸리지 않고 獨自의인 發展을 할 수 있는 幸運을 가졌던 나라였다. 이 點에 있어서 가령 獨·伊와 같은 分裂國家나 아시아·아프리카의 내셔널리즘이 大體로 外國勢力의 支配로부터의 集團의 獨立을 爭取하기 위한 反抗·鬭爭의 形式으로 發現되었고, 따라서 對內的 問題의 改善보다 對外的 獨立이 優先的으로 強調되어야 했던 것과는 對照的이다. 이와같이 英國은 近代的 統一國家의 틀은 形成하였으나 近代的 내셔널리즘의 發生과 直結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近代的 내셔널리즘의 發生의 條件으로서, 그 國家內的 多大數의 構成員이 自己를 地理的·身分的으로 隔離시킨 障礙를 打破하고 抽象的·普遍的인 人間으로서 國家와의 自覺的인 一體感·共屬感을 갖게 된다는 것을 要하는데, 이 時期에는 그러한 自覺은 發見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時期의 國家(State)의 核心的 擔當者는 國王이었지 一般民衆은 國家로부터 疎外된 存在에 不過했다. 즉 臣民과 國家(State)는 存在하였으나 國民(Nation)은 아직 存在치 않았던 것이다.<sup>22)</sup>

이와같이 〈國民〉의 一員으로서의 自覺發生의 前提가 되는 地域的·身分的인 隔差의 打破의 役割을 擔當한 階層이 封建的 經濟體制로부터 近代資本主義經濟體制에로의 發展을 推進하여 온 市民階級이었던바, 英國에서는 그들의 大部分이 〈清教徒〉였다는 事實은 特히 注目을 要한다. 英國내셔널리즘의 主擔當勢力이 清教徒中產階級이었다는 事實은 英國내셔널리즘으로 하여금 基督敎의 倫理的·個人主義的 性格을 強하게 더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點에 있어서 中產階級을 欠한 非西歐내셔널리즘과 比較할 때 重大한 性格上의 差異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어느 내셔널리즘 보다도 清教徒思想(Puritanism)의 倫理的 個人主義를 內包하였던 英國내셔널리즘은 宗教的 權威이건 世俗的 權威이건 간에 一切의 〈權威〉에 對抗하려는 個人的 自由의 主張에 깊이 뿌리

21) 이러한 中央集權的 統一國家를 絕對國家라고 부르는데, 英國에서는 Stuart 王朝, Tudor 朝가, 프랑스에서는 Bourbon 王朝時代의 國家가 가장 典型的인 것이었다. 그런데 西歐의 絕對國家는 強力한 專制君主制였으나 아시아의 專制國家와는 달리 그 속에 近代的인 諸要素를 內包하고 있었다.

22) E. H. Carr; Nationalism and After, 1945. (Macmillan)

大窪愿二譯, ナショナリズムの發展, 昭和42年, みすず書房, pp. 6—10. 李用熙教授도 이 點에 關하여 〈요컨대 민족주의라는 價値觀의 基底가 되는 민족개념은 단순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내」나라 라는 歸屬感과 情感의 소유자인 사람과 集團의 集結體이면서, 동시에 「내 나라의 主人」이라는 權利의 源泉으로 규정된다. 설령 實體的인 민족이 역사상 존재하는 경우라도 政治權力의 名分 또는 統治의 名分體로 취급되지 않았다면 민족주의의 價値觀을 지닌 민족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李用熙; 現代民族主義의 諸問題, 新東亞, 1973年9月號, p. 57

박고 있었다.<sup>23)</sup> 따라서 英國의 내셔널리즘은 個人(Individual human beings)을 有機體的全體로서의 國家(또는 民族)에로 完全히 統合(Integration)함을 自己의 目的으로 삼지 않았고, 이러한 個人主義的 自由를 原理로 하는 限에 있어서, 비록 各民族間에 多少間 他民族과 區別되는 集團의 獨自性을 가졌던 것은 事實이나, 民族間的 差異는 크게 強調되지 않았다. 오히려 民族의 概念은 National인 同時에 積極的으로 International이기 조차 하였던 것이다.<sup>24)</sup> 이러한 民族의 分類를 超越한 人類共同體를 強調하는 理念은 적어도 西歐基督教文明圈이라는 共同體社會內에서는 繼承되어 왔다. Hayes教授가 이 내셔널리즘을 人道主義的내셔널리즘(Humanitarian nationalism)이라고 命名한 理由는 여기에 있다.<sup>25)</sup> 各個人은 人間으로서 至上最高의 無限한 價値를 갖는 不可分의 人間存在(The individual human beings)이며, 따라서 個人은 그 自體에 있어서 尊貴하며 自由로운 存在라는 Calvin의 人間觀은 一切의 政治的·宗教的 劃一化나 어떠한 形態의 專制에도 對抗하여 이를 沮止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英國人の 宗教生活과 宗教感情은 內在的 生活과 內面的 自由의 聖域속에 隱遁하는, 非現實的 世界에 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 現實世界의 諸條件을 改善하려는 社會的 行動과 責任感속에 充滿되어 있었던 것이다. 英國人은 宗教的 政治的 自由라는 共同의 根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眞正한 國家(Commonwealth)의 基礎이다라는 共同의 意識속에 近代〈英國人〉은 새로 誕生하였던 것이다. 〈英國人〉은 單純히 血緣·地緣·言語·文字 等の 自然的 共同性 위에 形成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英國내셔널리즘의 特徵인 基督教의 個人의 自由主義는 J. Milton (1608~1674)이 그의 Areopagitica에서 〈奴隸狀態와 偏見의 桎梏으로부터의 人間의 救濟〉를 외쳤을 때, 그리고 〈다른 어떤 自由들 중에서도 良心의 命令에 따라 自由롭게 討論할 수 있는 自由를 다오〉<sup>26)</sup>라는 絶叫속에 이미 瀰瀰히 表明되어 있었다. 또 그것은 淸教徒革命의 指導者 O. Cromwell(1599~1658)이 1654年9月4日에 議會에서 行한 다음의 演說속에 더욱 明白하게 表明되었다. 〈良心의 自由와 人民의 自由—이 두 가지는 神이 우리에게 주신 榮譽이며 마땅히 爭取되어야 할 것들이다〉, 또 〈神이 이 世界에서 갖는 가장 큰 關心事가 있으니 그 하나는 宗教의 關心이며 또 다른 하나는 市民의 自由와 國家의 利益이다〉<sup>27)</sup>

〈基督教人の 참된 自由〉를 위한 〈個人의 良心의 自由〉라는 宗教的·倫理的인 個人主義의 主張이 政治的·經濟的 自由의 要求보다 先行되었던 英國내셔널리즘은, 처음부터 外國의 支配로부터의 政治的 獨立과 經濟的 自立을 標榜하고 出發하여야 했던 非西歐 내셔널리즘과는 이 點에서도 極히 對照的이다.

J. Milton속에 表明되고 淸教徒革命속에 育成되었던 英國내셔널리즘의 諸理念은 한 때 消滅된 듯 하였으나 1688年의 名譽革命속에 明白한 形態로 再生·再確認되었다. 즉 〈權利章典〉은 王權

23) L. Snyder(ed.); The Dynamics of Nationalism, p. 77.

24) E. H. Carr, Ibid., pp. 12—15.

25) C. J. H. Hayes; Ibid., pp. 16—17

26) Milton, Areopagitica, 1728. London, pp. 44—46, L. Snyder, Ibid., pp. 80~81에서 再引用

27) Hans Kohn;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1956. N. Y. p. 18.

에 對한 法의 優先權, 法律制定에 있어서 議會의 優先權, 正義의 公平性, 個人의 諸權利의 保障, 思想과 出版의 自由 및 宗教上의 寬容 等의 諸原則을 英國의 國民(Nation) 構成의 共同的 基礎로 確定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諸自由는 <이 나라 人民의 眞正하고 古來의 諸權利><sup>28)</sup>로 確認되어 그 후 英國國民의 現實生活와 傳統속에 뿌리 깊이 繼承되었다. 英國내셔널리즘이 그 후의 發展過程에 있어 對內外로부터의 權威主義와 主體主義의 危殆과 試練을 克服하여 民主主義와 人道主義의 路線을 大體로 固守하여 왔던 主要한 힘의 源泉은 여기에 있었다고 하겠다.<sup>29)</sup>

各譽革命의 理念이자 곧 英國내셔널리즘의 理念을 理論적으로 整理·體系化한 人物이 J. Locke (1632~1704)인데, 그의 <政府論>은 英國내셔널리즘의 個人主義의 自由主義의 性格을 端的으로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人間은 自己가 志向하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集團狀態로 돌아 가는데, 이 때에 集團은 個人이 達成하려는 目的에 反하는 諸障礙를 除去하여 주는 것만으로써 充分하다. 따라서 集團이 個人을 어느 다른 個人의 不確實하고 恣意的인 意思에 服從시키려는 것은 欺瞞이다.><sup>30)</sup>

Locke속에 要約된 英國의 自由主義의 내셔널리즘의 理念은 當時에 <舊制度>의 重壓 밑에서 새로운 社會建設을 渴望하던 프랑스 知性人들의 羨望의 對象이 되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社會秩序의 模範을 英國에서 찾으려 하였다. 특히 英國을 直接訪問(1726年~1729年)하였던 F. Voltaire의 英國國民의 生活와 自由에 對한 報告는 英國의 自由主義思想을 프랑스에 傳播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리고 英國내셔널리즘 思想의 프랑스에로의 傳播는 英國思想의 유럽大陸에로의 全規模의 傳播를 結果하였다. 그것은 當時에 프랑스는 二百餘年間이나 유럽大陸의 知的 中心地였고, 그 言語는 全유럽의 教養層의 共通語이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英國의 自由主義思想과 그 國家組織은 프랑스 啓蒙主義者들의 合理的 思考能力과 프랑스語의 明析性을 通하여 18世紀 유럽人의 一般의 意識속으로 吸收되었으며 近代의 내셔널리즘이 發現될 精神的 土壤을 釀成하여 주었다.

英國에서 發源한 理念을 繼承하여 이를 國家形態로 具現한 最初이 나라가 <新大陸>에서 誕生한 美國이었다. 이 新生國民은 共同的 祖上·宗教·人種·言語·文字 및 傳統 等의 自然的 共有에 基礎한 共同體가 아니었다. 美(國民)은 <모든 人間은 平等하게 태어났다는 것, 人間은 神으로부터 不可讓渡의 諸權利를 받았다는 것, 이 諸權利 中에는 生命·自由 및 幸福追求의 權利 等이 包含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眞理는 自明의 事實임을 主張한다>는 宣言속에 表明된 바 <眞理>에 對한 合理的·普遍的 信念을 共有한 人民의 共同的 努力의 結實으로서 새로 誕生되었다.

28) Andrew Browning(ed.); English Historical Documents, 1160—1714. III, London 1953.

29) L. Snyder는 <英國내셔널리즘의 宗教的, 自由主義의 特性은 19世紀 英國社會主義의 特異한 發展까지도 規定하였다. 英國社會主義는 大陸의 社會主義運動과는 判異하였다. 英國社會主義는 17世紀英國의 宗教的이며 自由主義的, 人道主義的인 組合教會主義(Independentism)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英國의 帝國主義조차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cf. L. Snyder; Ibid. p. 78.

30) J. Locke; Two Treatises on Government, Chap. 4.

美國의 〈國家〉는 家族의 延長으로서의 家族國家(Family state)나, 非世俗의인 宗教國家, 或은 血緣的·地緣的 要因을 國家形成의 求心力으로 한 民族共同體(Volksgemeinschaft)와 같은 國家概念은 아니었다. 美國은 創造的 發展을 阻止하는 封建的 過去의 殘滓가 없는 〈新天地〉의 無限한 領域위에서, 中世의 封建的 傳統의 重壓的 過去의 어둠속에서가 아니라 人民意思의 自由속에서, 啓蒙思想의 밝은 빛속에서 誕生하여 發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美國의 誕生(獨立)은 프랑스 大革命勃發의 重要한 要因이 되었고 프랑스大革命은 近代의 意味의 내셔널리즘을 가장 明確한 形態로 發現시켜 이를 유럽의 全地域에 波及시켜 놓았다.

이와같이 西歐의 近代의 내셔널리즘은 17世紀에 英國의 特殊한 歷史的 風土속에서 發源하여 그 理念은 啓蒙思想속에서 더욱 洗練·深化되면서 새로운 美國을 形成하였고, 〈舊制度〉를 打破한 프랑스 大革命을 거쳐 19世紀에는 全유럽을 휩쓸었다. 뿐더러 西歐내셔널리즘은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아프리카에 浸潤하여 그 곳에 새로운 民族의 感情을 喚起하였고, 오늘날 그곳의 거센 내셔널리즘의 運動은 오히려 西歐世界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다.

17世紀末에 英國을 起點으로 發源하였던 西歐내셔널리즘은 20世紀에 이르기까지 自由主義的 理念을 그 基流로 하면서도 時代的 狀況의 變遷에 따라 여러 變化와 段階를 거쳐 發展하여 왔다. 西歐내셔널리즘의 發展段階의 區分은 學者의 區分基準에 따라 多樣하나<sup>31)</sup> 그 중에서 E. H. Carr와 C. J. H. Hayes의 所論은 非西歐내셔널리즘과의 比較를 위해서도 注目할 만하다. Carr는 내셔널리즘의 主擔當勢力이 누구였는가를 區分基準으로 삼아 西歐내셔널리즘의 發展을 다음의 세 時期로 區分하였다.

즉 第一期는 프랑스大革命과 나폴레옹 戰爭으로써 끝나고 뷔인會議를 그 終章으로 한 時期, 第二期는 本質的으로 프랑스大革命의 所産이며 그 基盤은 1870年 以來에 甚히 무너져 가면서 1914年의 終局까지 存續하여 베르사이유 講和에 이르러 끝나는 時期, 第三期는 1914年과 1934年 사이에 極點에 到達한 時期, 그리고 第四期—第三期와 判異하게 區別할 수 있는 特性을 가진 第四期라고 命名할 수 있는 새로운 時期—에 進入하였다고 斷言하기에는 時期尙무라고 하였다. 즉 西歐내셔널리즘은 아직은 第三期의 段階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위의 各時期는 내셔널리즘의 主擔當階層의 變移를 말하여 준다. 즉 第一期는 中世의 世界教會나 神聖로마帝國의 普遍主義로부터 國王을 求心力으로 分離하는 同時에 封建的 分立에서 오는 地方的 隔差도 또한 國王을 中心으로 中央集權的 國家속에 解消·統一함으로써 그 統一國家內의 住民으로 하여금 하나의 共同體意識을 갖게 하였던 時期이다. 그러나 그 共同體意識은 아직은 Volk的인 共屬感情(Zusammengehörigkeitsgefühl)이었을 뿐 人民主權에 바탕한 우리의 나라라는 國民的 次元의 自覺은 不明하였다. 그러므로 이 時期의 내셔널리즘의 主擔當者는 〈國王〉이었다. 第二期는 〈第三階級〉으로서 歷史舞臺에 새로 登場한 新興産業市民層을 그 主擔當勢力으로 한 時期였다. 第三期는 高

31) L. Snyder: Ibid., pp. 35—54.

도의 産業社會의 出現과 民主主義思想의 一般의 普及에 따라 一般大衆이 政治的 參與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셔널리즘의 實質的 세력으로 된 時期이다.

또 위의 各時期는 政治的으로는 絕對主義時代, 自由主義時代, 帝國主義時代에 各已 該當되며, 經濟的으로는 重商主義時代, 産業資本主義時代, 金融資本主義時代에 各各 符合된다. 또 위의 各時期는 國家의 性格에 있어서도 各各 〈絕對國家〉, 〈夜警國家〉, 〈福祉國家〉에 符合된다. 또 그 課題에 있어서도 第一期가 Nation의 〈統一〉, 第二期가 Nation의 〈民主化〉를 特徵으로 한 데 對하여 第三期는 Nation의 〈社會化〉를 特徵으로 삼는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西歐내셔널리즘은 그 前後期를 通算하여 적어도 三百年의 長期間을 所要하면서 그 때 마다의 時代의 課題를 段階的으로 解決하면서 發展하여 왔다. 西歐내셔널리즘의 歷史의 長久性과 그 發展의 段階性이라는 點에 있어서도 非西歐내셔널리즘의 歷史의 日淺性과 그 發展의 同時性·重疊性과는 極히 對照的인 것이다.

또 Hayes는 西歐내셔널리즘을 主로 理念史의 側面으로부터 考察하여 그 發展段階를 人道主義的, 자코뱅的, 傳統主義的, 自由主義的 및 全體主義的(Integral) 내셔널리즘으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위의 여러 類型의 내셔널리즘은 西歐의 當該各時代의 歷史의 理念에 符合하는, 바로 西歐의 精神史이기도 했다. Hayes에 依하면 자코뱅的·傳統主義的 및 自由主義的 내셔널리즘은 그 起源을 다 같이 18世紀의 人道主義的 내셔널리즘에 둔 同一精神의 다른 表現으로 보았으나 19世紀末—20世紀初부터 擡頭하기 始作한 全體主義的 내셔널리즘은 西歐내셔널리즘의 基流를 이루어 오던 人道主義的 내셔널리즘과는 判異한 異質的인 것으로 보았다. 그에 依하면 西歐내셔널리즘에 貫流되어 오던 人道主義的 理念을 全體主義的인 것으로 變質케 한 要因으로서 軍國主義精神의 培養, 民族的 優越感, 宣傳機關의 發達, 産業革命과 物質文明의 發達 등을 指適하고<sup>32)</sup> 全體主義에로의 傾向은 全世界의 現象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1930年代의 獨·伊·日의 내셔널리즘을 英·美·佛系의 그것과 同一系로 把握하여 全體主義的 내셔널리즘의 範疇속에 包含시키는 問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西歐의 人道主義的 或은 自由主義的 내셔널리즘의 適用範圍는 自國內의 國民에게만, 기껏해야 西歐基督教文化圈에만 限定되었음은 事實이다. 東歐는 같은 基督教文化圈이지만 그 大部分이 이슬람教인 터키의 植民地였을 뿐만 아니라 非 유럽系民族들이 混在하였고, 그 基督教도 東로마系統이 支配的이었던 故로 그 適用範圍로부터 除外되었다. 特히 아시아·아프리카의 非西歐地域에 對하여서는 基督教文明圈에서 適用되던 自由主義的·人道主義的 倫理感에 拘碍됨이 없이 〈白人種의 義務〉라는 美名아래 無制約的 侵略競爭과 他民族의 政治的 存在를 認定치 않는 植民地化에 유럽의 내셔널리즘이 動員되었던 事實은 西歐의 自由主義的 내셔널리즘의 限界性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西歐〉와의 文化的 接觸에 依하여 非西歐地域에 元來 이곳에서는 낯설은 새로운 近代的인 制度가 移植되었고, 새로운 近代的인 覺醒이 促進된 것도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32) Hayes; Ibid., p. 93.

## 2. 非西歐내셔널리즘의 發現

### i) <非西歐>의 一般의 特性

위에서 본바와 같이 西歐내셔널리즘은 西歐에 固有한 精神的·社會的 基盤위에서 西歐社會의 內生的 自力에 依하여 發生·發展하였다. 그러나 非西歐내셔널리즘은 西歐의 <文化的 接觸>에 依하여 <西歐>가 아닌 <非西歐>라는 特有한 歷史的 土壤위에서 發現·發展하였다. 그리고 이 歷史的 土壤 즉 數千年間의 歷史的 傳統속에서 形成되었던 이 特性은 極히 最近의 事實인 西歐의 支配에 依해서 容易하게 拂拭될 수 없는, 그 實質은 그대로 維持되면서 非西歐型이라는 特殊한 내셔널리즘의 性格을 規定한 強靱한 것이었다.<sup>33)</sup> 따라서 非西歐내셔널리즘의 發生의 土壤이 된 非西歐地域에 共通되는 一般의 特性에 對한 考察이, 이 地域에서의 西歐의 植民地統治時代의 考察보다 非西歐내셔널리즘의 性格과 課題를 理解하는데 더 重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觀點에서 西歐의 本格的 進出 以前의 <非西歐>에 共通되는 一般의 特性에 對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그런데 <非西歐>의 地理的 範圍는 實로 廣範圍하여 一旦 이것을 아시아로 限定하여도 그 地理的 廣範圍性과 內容의 漠然性은 如前하다. 아시아라고 하여도 中國을 中心으로 한 東아시아 文明圈, 印度를 中心으로 한 南아시아 文明圈, 그 歷史的·地理的 및 民族的 復雜性으로 因하여 어느 特定한 國家나 中心地域을 設定하기가 어려운 西아시아 文明圈 등의 三大文明圈밖에도 地理的으로 北아시아, 中央아시아를 包含하는 內陸아시아 世界도 存在하며, 더욱 위에서 列擧한 三大文明圈에 內屬하는 各地域은 그것들대로 獨立的인 特殊性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의 地理的 範圍는 時代에 따라 그 廣狹이 不一定하였으며 아시아는 歷史와 傳統에 있어서 저마다 매우 高度의 自足性을 가지고 있는 여러 文明圈과 國家들이 並列하여 비록 그들 사이에 或種의 交涉關係가 있었다고는 하나 유럽的인 意味의 共同體나 <國際社會>를 갖지 못한 閉鎖的 孤立的인 雜多한 諸地域의 總稱에 不過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아시아라고 하는 世界가 비록 客觀的으로 存在하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의 單純히 雜多한 諸地域의 漠然한 總稱에 그치지 않고 <西歐>와 確然히 區別되는 歷史的 內容과 意味를 갖게 된 것은 유럽과의 全面的·組織的·繼續的인 交涉를 갖게 된 18世紀 以後의 일이었다. 그리고 近代의 意味의 내셔널리즘이 아시아에 發芽하게 된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지난 19C末 以後의 일이다. 아시아는 地域的으로 廣範圍하

33) E. Reischauer, J. Fairbank, A. Craig: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 7th printing 1971 Charles E. Tuttle Co., Tokyo. pp. 8-10.

34) 오늘날 一般的으로 廣義의 <아시아>의 地理的 範圍는 <西洋>에 對立되는 <東洋>과 一致시켜 使用된다. 그러나 <東洋>의 語源은 中國의 星槎勝覽, 東西洋志, 島夷志略에서 發見되는데, 그 內容으로 보아 元末 明初까지는 印度支那半島의 南쪽 崑崙島를 中心으로 그 東方을 東洋이라 하였다. 그후 漸次로 東海의 交通이 빈번해지고 日本의 存在가 두드러짐에 따라 清代까지 中國人은 <東洋>을 日本을 指稱하는 말로 使用하였다. 東洋이란 말이 大略 아시아와 비슷하게 쓰여진 것은 明治維新 以後 日本으로부터 비롯되어 마침내 中國에서도 그와 같은 意味로 使用되었다. (cf. 王相齡; 新著東洋史, <廣義之東洋指亞洲大陸全部而云>). 또 오늘날 <東洋>을 最廣義로 아프리카까지 包含시켜 使用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西洋에서의 <Orient>는 처음엔 로마인이 地中海東方 Syria의 沿岸地方을 指稱한데서 비롯하여 드디어 오늘날에는 地中海 東쪽의 諸國을 總稱하는 <東洋>과 비슷한 意味로 쓰여지게 되었다.

고 그 文化的 特性에 있어서 固有한 多樣性을 갖는 만큼 아시아에 共通하는 一般的 特性을 抽出하는 作業은 많은 無理가 隨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內的 各地域의 文化的 特殊具體性은 近代的 發展을 一旦 完成하였던 〈西歐〉와의 對比에 있어서 一般化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西歐와 對比되는 아시아(東洋)에 共通하는 一般的 特性을, 陳腐한 表現이지만, 그 〈後進性〉에서 求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後進性〉의 具體的인 內容·實態는 아시아의 各地域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가령 아시아의 〈後進的인〉 社會形態에 있어서도 中國은 集權의 官僚體制, 印度는 分權의 宗教社會, 西아시아는 集權의 宗教社會라는 差異가 있듯이<sup>35)</sup> 아시아 各地域의 特殊具體性을 細分하자면 거의 限定이 없을 것이다.

〈西歐〉와 區別되면서도 同時에 아시아 各地域의 特殊具體性이 說明될 수 있는 아시아에 共通하는 一般의 特徵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즉 其一은 家父長制(Patriarchalism)의 原理위에 立脚한 專制主義政治의 早期的 畸型的인 發達과, 其二是 氏族團體 또는 族姓團體의 鞏固한 殘滓가 그것이다.

西洋은 비록 奴隸制度위에 基礎를 두었던 古代에 있어서도 市民間에는 同等한 自由가 있었고 西洋의 近代史는 한결같이 自由를 위한 鬪爭의 歷史였다. 이에 反하여 아시아(東洋)에서는 일찍부터 太平洋沿岸으로부터 地中海沿岸까지 비록 濃淡의 差는 있었으나 오직 君主만이 自由로운 專制一色만이 오랜동안 繼續되었다. 西洋의 Feudalism이 對等獨立한 人格과 人格과의 雙務的 契約으로 맺어진 主從關係(Lehnswesen)이었는데 反하여 東洋의 封建制度는 一方的인 命令과 血緣的關係로 맺어진 君臣關係였다. 그것 마저도 흔히 未成熟 또는 不成立인채 그치고 말았다. 西歐人이 良心에만 服屬시키는 것을 흔히 東洋에서는 家父長的 君主의 支配에 맡겼다. 〈同等者 中에서 第一人者〉로서의 王(King)이라는 觀念이 強했던 西歐와는 달리 東洋의 君主는 世俗的 統治權뿐만 아니라 宗教的 統治權도 가졌던 故로 東洋의 專制政治는 神政의 性格을 길게 띠고 있었다. 西洋의 絶對國家는 비록 王權神授說에 基礎한 無制約的 君主權을 所有하였으나 結果的으로는 近代化에 必要한 段階이기도 했던 것이다. 즉 絶對主義國家는 封建制度의 最後의 段階 또는 中世와 近代와의 過渡期的 段階로서 中世의 普遍的 支配를 離脫하고 封建的 分立을 打破하여 近代 民族國家(Nation-State)의 基礎인 集權的 統一國家라는 近代的 課業의 하나를 達成하여 주었던 것이다. 이에 反하여 東洋에서는 家父長的 專制政治가 東洋史의 出發點부터 畸型的으로 發達하여 近世에 이르기까지 鞏固하게 殘存하여 近代化에로의 發展을 沮止하는 役割을 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家父長的 專制政治 밑에서 東洋의 自由란 기껏해야 家父長的 專制者의 慈悲에 順服하도록 修養함으로써 到達될 수 있거나, 아니면 專制政治의 現實로부터의 逃避·沈默 또는 解脫으로써 現世的인 意欲을 斷念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東洋의 歷史에는 〈革命〉은 있어도 西洋의 Revolution은 없었다. 비록 政權의 移動은 있었다하여도 그것은 支配의 根本原理의 變動을 뜻

35) 石橋秀雄; アジア史の流れ, 1973 山川出版社 pp. 17--50.



하리 않는 〈易姓革命〉에 不遍하였다.

아시아의 大專制國家 或은 官僚政治의 早期的, 畸型的 發達의 原因을 M. Weber는 西洋의 森林文化(Waldkultur)에 對하여 治水灌溉文化(Bewässerungskultur)에 依하여 說明하고 있거니와, 어쨌든 그 社會的 基盤을 農耕社會에 둔 이러한 東洋의 專制主義가 支配하던 아시아에서 資本主義가 成長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시아의 共通的 現象이었다. M. Weber에 依하면<sup>36)</sup> 西洋近世를 形成하고 西洋으로 하여금 東洋보다 優越하게 만든 것은 近代生活의 가장 運命的인 힘, 즉 資本主義였으며 그것이 一般의으로 東洋에 不成立한 것은 東洋人은 西洋人이 가졌던 資本主義精神을 갖지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依하면 資本主義精神은 一切의 傳統의 生活關係로부터 벗어나려는 孤立主義의 形式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一切의 外的 壓力이나 權威에 抵抗하려는 強烈한 自己責任感, 不斷한 自制, 冷靜한 克己心을 要求하는 反面에, 주어진 職業을 神의 召命으로 알고 一身上의 快樂과 安易를 버리고 嚴格한 規律的 生活밀에서 勞動해야 한다는 意志의이고 禁欲的인 生活態度 즉 職業倫理를 갖게 한다. 따라서 西洋에서는 金錢獲得行爲는 單純한 金錢欲이 아니라 倫理的으로 뒷받침된 것으로 市民階級の 자랑스러운 自覺的인 行爲이었다고 한다.

이에 反하여 아시아人은 첫째로 內面的自覺이 없었다. 그들의 日常生活을 規制하는 것은 전혀 內面的 自覺에 依하여 統制되지 않는 外部的 힘, 즉 慣習·儀禮·典禮 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內面的 自覺에 依하여 統制되지 않는 東洋人의 精神生活은 겉으로는 謹嚴한 道德者이지만 속으로는 極히 非道德的이고 形式的인 儀禮信奉者라는 二重人格者를 만든다. 여기에 營利行爲를 反倫理的인 것으로 禁하는 嚴格한 傳統의 拘束과 露骨의인 營利行爲가 兩立할 餘地가 있었으며, 事實 東洋에 있어서는 倫理生活과 營利生活은 전혀 關係없이 存立하였던 것이다. 東洋에서 營利行爲는 倫理上으로는 許諾된 수 없었던 故로 倫理가 不必要한 卑賤한 階級들에 依한 營利行爲 즉 賤民資本主義(Paria-Kapitalismus)는 發生하였지만 西洋의 倫理的 資本主義는 發生하지 않았다. 東洋의 上層階級도 이러한 職業倫理를 전혀 갖지 않고 오로지 德을, 즉 全人格을 修養함으로써 足하였지 農耕이나 商業上의 知識, 또는 近代國家의 官吏로서 必要한 法律이나 技術上의 知識은 必要로 하지 않았다.

內面的 自覺 즉 個人意識이 欠如한 아시아人은 家族과 村落, 其他 傳統的인 生活圈으로부터 明確히 分離된 自身을 意識할 수 없었고 經濟的 交易行爲에 있어서는 權利와 義務의 主體는 흔히 自己가 아니라 家族全體이거나 村落共同體 全體였으며, 그러한 集團의 內部에 있어서는 個人의 獨立된 人格은 認定되지 않고 集團 全體속에 埋沒되어 버렸다. 따라서 흔히 責任과 義務는 〈나〉에 있지 않고 〈우리〉에 轉嫁된다. 西洋的 意味의 個人主義(Individualism)는 흔히 利己主

36)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ie Geist des Kapitalismus, Gesammelte Aufsätze der Religion Soziologie, I, 1922.

(tr. by Talcott Parson;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58. N. Y. Scribner.)

義·反社會的인 것으로 異端規되었다.<sup>37)</sup> 아시아人에게는 法律은 合理化되지 않고 西洋的인 抽象的·形式的인 論理는 通用하지 않았다. 따라서 個個人으로부터 獨立한 公共組織體나 制度에 對한 觀念은 發達하기 힘들었으며 西歐流의 公共精神과 政治道德도 發達하기 힘들었다. 말하자면 家族精神은 있었지만 社會精神은 缺如되었던 것이다.<sup>38)</sup>

또 아시아에서의 資本主義精神의 缺如는 產業資本主義의 發達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그 經營者인 市民階級도 發生하지 않았거니와, 이와 관련하여 市民(Bürger)의 生長場所인 都市(Burg)도 發生치 않았다. 西歐의 都市의 特徵은 都市 自身の 裁判權·立法權의 所有, 그 公共團體性 및 都市民의 自治行政 等に 있었는데, 이런 都市는 아시아에서는 發達하지 않았다. 비록 그것과 形式上 비슷한 都市는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非生産的인 官吏階級の 居住場所로서 그들의 消費에 依하여 成立된 消費都市였을 뿐이다. 都市의 自由와 市民의 自治的 團結은 전혀 없었으며 若干의 市民의 團體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은 마침내는 賦役, 納稅, 警察 其他의 行政目的에 利用되었을 뿐이다. 또 氏族과 血緣의 村落, Caste 等の 傳統的인 團體의 殘存으로 아시아에서 西歐的 都市는 發達하지 못 하였다. 例컨대, 中國의 都市人들은 그들이 勞動者 官吏 또는 文人으로서 비록 都市에 居住하였지만 結局은 그들은 自己들의 故鄉에 있는 氏族과 血緣的인 村落 等の 傳統的 團體의 一員으로서의 觀念과 愛着이 더 強하였기 때문에 自由로운 市民階級으로서 發展되지 못하였다. 印度에 있어서는 嚴格한 Caste 意識 밑에 묶여 있던 그들이 하나의 市民階級으로서의 統一的 意識은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西歐의 本格的인 侵入이 있기 以前의 아시아에 共通하는 또 다른 特徵으로서 孤立封鎖的인 村落共同體(Village Community)의 強力한 保存을 들 수 있다.

그것은 單純히 自然發生的인 農業共同體는 아니고 租稅徵收와 保安上의 連帶責任을 負荷한 合理的으로 改編組織된 것이었다. 어쨌든 社會의 基盤인 下層階級은 이러한 村落共同體의 拘束을 받았으며, 이에 對하여 官僚는 王이 家父長的 關係에서 全人民에게 對하는 것처럼 管下民에 對하여 또한 家父長的 絕對權利를 가지고 不法으로 土地와 人民의 隱占, 租稅의 橫領, 其他의 經濟外的 支配를 通하여 致富를 하였던 것이다. 經濟적으로 自足性을 가지고 他部落과의 依存關係없이 오히려 敵對하는 孤立封鎖的 村落共同體들로서 構成되어 있는 社會는 마치 서로 有機

37) 아시아 社會의 歷史的傳統속에는 專制的性格만이 아니고 村落共同體속에 民主的要素가 存在하였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러한 村落共同體의 民主主義에 關하여 R. Emerson은 다음과 같이 論評하고 있다.

《傳統的인 村落民主主義(traditional village democracy)는 결코 <一人一票>(one man, one vote)主義의 政治的 表現속에 보는 바<人間의 平等과 尊嚴>이라는 觀念은 內包되지 않고 力點은 集團에 있지 個人에 있지 않는다. 분더러 地方的인, 面接的인(face-to-face) 關係로부터 未知의 大衆이라고 하는 큰 國民的規模로 이것을 延長하려는 것은 不可能하며 近代의 民主制度를 古來의 傳統속에서 求하려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이러한 連續性은 遮斷되어 있으며 오히려 그것은 全的으로 다른 새로운 原理의 導入임을 認定하여야 한다.》 cf. R. Emerson; Problem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Vol. xxiv, December, 1953.

38) Lin Yutang (林語堂); The Importance of Living, (Royal & Hitchcock, N. Y. 1937), 金秉喆譯; 生活의 發見, 乙酉文化社 1973. pp. 182-191.

的 連絡이 없는 孤立된 無數한 細胞들로서 이루어진 社會와 같았으므로, 이것이야말로 野生的인 專制者의 좋은 地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一般庶民들은 이러한 孤立封鎖의인 村落共同體를 自己의 小宇宙로 알고 井底蛙格으로 因循과 迷信속에서 生活하는 限 여기서 創造的인 에너지와 새로운 近代意識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의 發生은 期待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시아의 一般的 性格에 關한 以上의 敍述한 바에 依하여 強調되어야 할 事實은 西歐와 非西歐(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은 그 發生의 歷史的 基盤을 달리하였으며, 西歐내셔널리즘의 發生을 促進하였던 條件을 아시아에서는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西歐에 있어서 中世로부터 近世에 걸쳐 近代의 내셔널리즘을 促進한 條件으로서 ① 支配와 被支配의 關係를 徹底하게 變革하고 階級과 身分制度를 徹廢하는 性格을 가졌던 人民主權의 思想, ② H. Grotius나 J. Locke 등에서 表現된 새로운 自然科學과 自然法에 바탕한 <世俗化된 思想>, ③ 傳統의인 經濟生活을 打破하고 宮廷과 그들의 文明으로부터 民衆의 生活, 言語, 藝術에 關心을 돌리게 한 <第三階級>, 즉 市民階級の 擡頭等을 들 수 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條件들은 아시아에서는 發見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上述한 아시아의 一般的 特性은 西歐의 帝國的 植民地 被支配下의 西歐文明의 移植에 依해서도 完全히 拂拭될 수 없을 程度로 뿌리 깊은 것이었다. 西歐의 植民地統治體制의 支配者는 植民地本國의 支配者와 아시아의 土着的, 傳統의 舊勢力과의 新·舊 두 勢力의 結合體制였고<sup>39)</sup>, 또 西歐의 所謂 <分割統治>나 <間接統治>는 아시아의 傳統의인 停滯的 要素를 溫存케 하였다<sup>40)</sup>. 비록 傳統의인 政治構造가 社會的 變化에 依하여 弱化되었다고 하여도 오랜 뿌리 깊은 文化的 價値의 實質은 不變한 채 그대로 存續하였다<sup>41)</sup>. 傳統으로부터 脫出할 수 있는 方法을 習得한다는 것은 民衆에게는 進歩의 條件이었으나 傳統을 尊重한다는 것은 그들의 生存의 條件이었던 것이다<sup>42)</sup>. 그러므로 上述한 아시아의 一般的 特性은 아시아 내셔널리즘을 發生·成長케한 歷史的 基盤으로서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性格이나 課題 및 그 將來를 規定하는 重要한 要因인 것이다.

## ii) 非西歐 내셔널리즘의 發現

西歐 내셔널리즘이 西歐社會의 內在的 諸力에 依한 自生的 自力에 依하여 發生·發展하였다면, 非西歐내셔널리즘은 自己發生的이 아니라, 西歐의 文化的 接觸에 依하여 覺醒되어 非西歐의 傳統의 基盤위에서 西歐에 對한 抵抗으로서 發現하였다.

위와 같이 아시아가 家父長的 專制主義가 支配하는 社會속에서 個人的 自覺의 未覺醒, 合理精神의 欠如, 資本主義와 市民階級の 未發達, 專制的 家族主義의 重壓, 權威主義의 橫行 等 고

39) E. Reichauer; Ibid., p. 802.

40) 板垣與一; アジアの 民族主義と 經濟發展, 東洋經濟新報社 1962. pp. 3-24.

41) Claud E. Welch(ed.); Political Modernization, 1967(Wadsworth Publishing Co., Belmont, California)p. 11.

42) Ibid., p. 9

든 停滯의 要素의 壓力 밑에 걸으므로는 停止·不動인 듯 보일 程度의 緩慢한 歷史의 前進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즉 아시아 自身의 力量으로써 그 社會를 近代에로 推進시키지 못 하고 있을 때 近代의 西歐와 對決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것은 單純히 國民이나 政府끼리의 對立이 아니고 두 異質의 文明間의 對決이었다. 또 그것은 時間的 中世를 自己의 歷史 속에 止揚하여 近代를 確立하고 이제 空間的 中世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를 克服하려 나선 西歐의 近代와 아시아의 <中世>와의 時代的 對決이기도 하였다<sup>43)</sup>.

西歐와의 속절 없는 對決에서 아시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過去 數千年間의 諸制度가 根底로부터 動搖되고, 지금까지의 生活에 適切하다고 믿었던 經濟的·政治的 制度가 西歐의 侵略 앞에 無力하고 不適當함을 認識하게 되면서 그들이 아시아 <民族> 임을 自覺하게 되었다. 卽 西歐의 아시아에의 侵略과 支配는 結果의 으로 아시아에 내셔널리즘을 發生케 한 酵母의 役割을 한 셈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民族의 自覺은 西歐처럼 個人의 自由에 對한 內面的 自覺으로부터 到達된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의 民族의 自覺은 그들의 現在의 貧困의 招來者이며 傳統의 生活樣式의 破壞者인 西洋人에 對한 <아시아人>이라는 集團全體로서의 自覺이었다. 그들이 渴望하는 自由는 個人의 自由 보다 <支配로 부터의 自由>(政治的獨立)와 함께 <貧困으로 부터의 自由>(經濟的 自立)가 優先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44)</sup>. 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은 그들이 植民地 或은 半植民地의 地位로 轉落되는 過程에서 (或은 그러한 運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 原因者인 西洋에 對한 抵抗으로서 出發하였던 限에 있어서<sup>45)</sup> 所謂 植民地 내셔널리즘의 抵抗의 인 性格을 띠기 마련이었다<sup>46)</sup>. 獨立 後에도 舊植民地被支配時代의 惡夢과 그 危脅이 完全히 拂拭되지 않는 限, 그 抵抗의 性格은 쉽사리 解消될 수는 없을 것이다. 非西歐 내셔널리즘이 흔히 本能的, 激情的인 傾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觀點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近世初의 西歐 내셔널리즘이 그 發生의 端緒에 있어서 中世의 <普遍主義>에 對한 反抗으로서 일어났다면, 아시아 내셔널리즘은 <植民主義>(或은 帝國主義)에 對한 反抗으로 發生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시아人은 <反帝>(反植民主義)의 抵抗意識속에서 <反封建>(近代化)意識을 成長시켜 갔다<sup>47)</sup>.

43) H. Kohn은 이 東西接觸의 基本的意義를 <歷史的 時代의 均質化>(Ausgleichung des Geschichtsepochen)에 있다고 보고 世界史形成의 運命의 事實로서 理解하고 있다.

cf. Hans Kohn; Orient und Oxident, Weltpolitische Bücherei, Band. 24, 1931. (München) S. 11.

44) E. Reischauer, Ibid., pp. 802—803. p. 669.

45) 인도네시아의 一般住民의 내셔널리즘 運動은 먼저 그들의 日常生活에서 늘 接觸하던 <東洋外人團>(華僑·印僑)에 對한 排斥運動으로 出發하였으나, 그들의 背後에 있는 西洋人의 存在를 認識함에 따라 漸次로 反政府, 反西歐人運動으로 成長하여 갔다. cf. 板垣與一; 上掲書 p. 47 pp. 52—53

46) Macmahon은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核心을 反植民主義로 보고 그 基本의 特徵을 ① 政治的 反抗(帝國主義에 對한 反抗) ② 社會的 經濟的 反抗(貧困에의 反抗) ③ 人種的 反抗(西洋에의 反抗)에 있다고 한다.

cf. Ball, W. Macmahon;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 1951(Melbourne Univ. Press)p. 1.

47) 反帝와 反封建의 運動이 並行的이었느냐, 同時的이었느냐는 아시아의 地域에 따라 반드시 같지는 않았으나. 가령 印度는 反封建을 意識하지 않는, 或은 弱하게 意識하는 立場에 있고, 中國은 反封建을 反帝國과 一體화하여 克服하려고 하였다. (石橋秀雄; 上掲書, pp. 129—132, pp. 133—134.)

이리하여 反帝와 反封建의 運動은 初期의 尊王攘夷의 排外主義(Xenophobia)의 段階<sup>49)</sup>로부터 西歐를 模範으로 한 近代의 國民國家의 樹立이라는 하나의 具體的 目標속이 集約되어 發展하게 되었다<sup>50)</sup>.

마침내 이러한 內部的 諸要因과 아울러 帝國의 植民主義의 矛盾, 民族自決主義에의 國際的 基調의 一般의 推移, 特히 帝國의 植民主義에 決定的 打擊을 준 第二次大戰 等の 國際的 外部的 要因으로, 아시아의 많은 被支配民族들은 그들의 當面の 目標인 <獨立>을 獲得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新生國家들은 <낡은 社會위에 세워진 새로운 國家><sup>51)</sup>이었다. 아시아의 停滯의인 <過去의 引力><sup>52)</sup>은 近代化에로의 前進를 沮止하는 強力한 要因으로서 作用하고 있다. 또 非西歐 내셔널리즘의 推進勢力은 少數의 西歐思想에 영향받은 知識層과 特權的 支配層 및 大多數의 未定形의 大衆으로서 大體로 中産階層을 欠하였다. 아시아 社會는 大部分이 所謂 <二重社會> 또는 <複合社會><sup>53)</sup>로 構成되어 있던 關係로 社會의 中間階層은 華僑나 印僑 등의 東洋外國人이 占하였던 故로 내셔널리즘의 推進力은 西歐와는 달리 勞動者와 農民에 直結되는 傾向을 가졌다. 民族資本의 未發達과 中産階層의 欠如는 非西歐 내셔널리즘으로 하여금 資本蓄積과 勞動者·農民의 經濟的 均配의 二問題의 同時的 解決이라는 重荷를 賦課케 하였다. 後者の 問題가 容易하게 解決되지 않는 곳에서는 내셔널리즘을 所謂 프롤레타리아 世界革命의 一環으로서 利用하려는 國際共產主義의 危脅을 恒常 받고 있다. 極貧大衆에 依해서 그 에너지를 提供 받고 있는 非西歐 내셔널리즘 運動은 元來가 未定形의(amorphous), 이 巨大한 힘에 주어지는 指導에 따라 그 發現의 方向은 극히 多樣錯雜한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獨立>以後 오늘날의 非西歐 내셔널리즘은 그들의 뿌리 깊은 停滯的 過去의 重壓, 植民地被支配時代의 깊은 傷處, 여기에 더하여

49) 이러한 尊王攘夷의 排外主義運動의 例로서는, 印度에서는 1857年의 Sepoy의 反亂, 버마에서는 1931年의 Saya San의 反亂, 中國에서는 1900年의 義和團의 亂 等을 들 수 있다.

50) R. Emerson; Ibid., p. 204.

51) Claude E. Welch; Ibid., p. 19.

52) Ibid., p. 32.

53) 아시아 아프리카의 後進社會는 ① 二重社會(dual society) ② 複合社會(plural society) ③ 多元人種社會(multi-racial society)의 세 類型으로 分類된다.

① 二重社會란 外部로부터 輸入된 西歐資本主義가 前資本主義的 農村社會에 侵入하여 前者에 依하여 後者가 若干의 打擊을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그 固有의 社會體制는 存續되어 두개의 異質의 社會體制가 融合되지 않은 채 同時에 並存하고 있는 社會이다. (cf. J. H. Boeke;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of Dual Societies as Exemplified by Indonesia, 1953(N. Y.)p324.)

② 複合社會란 <同一의 政治的 單位 아래 元來가 異質의인 若干의 社會集團(들 또는 둘 以上の 構成要素 또는 社會秩序)가 分離된 채로 並存하되 融合하지 않는 社會이다. (cf. J. S. Furnivall;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Cambridge 1939. p. 446)

Furnivall은 Boeke와는 달리 <社會體制>보다도 社會의 人種의 構成에 重點을 둔다. 이 社會의 人種의 構成은 三階層으로서 上層은 西歐人, 中間層은 東洋外國人, 最下層은 土着原住民이다. <共通의 社會意志>와 土着原住民의 中間層의 欠如가 이 社會의 特徵이다.

③ 多元人種社會란 <한편으로 封建的 또는 家父長的 意圖를 갖는 組織과 다른 한편으로는 近代의인, 開放的인 社會와의 中間에 位置한 社會이다.>(cf. Frankel; The Economic Impact, p. 121. 板垣與一; 上掲書 pp. 226-232 參照)

超強大國家들의 國際的 壓力을 克服하면서 새로운 時代에로의 多難하고 錯雜한 길을 걸고 있는 것이다.

#### IV. 結 論

지금까지 筆者는 내셔널리즘을 西歐와 非西歐의 두 類型으로 分類하여 主로 그 概念과 發現(Origin)의 두 側面의 比較를 通하여 特히 非西歐내셔널리즘의 特徵과 課題를 究明하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點에서 不足하다는 批判을 免치 못할 것 같다. 또 두 類型을 比較하는 敘述形式에 있어서 비록 兩者의 比較를 意識하면서 敘述한 것이었지만, 兩者를 各各 別途로 敘述하였던 故로 그 比較가 明確하지 못 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以上에서 比較한 바를 整理綜合함으로써 結論으로 삼으려 한다.

첫째로 내셔널리즘의 概念上的 比較에 있어서 두 類型間의 根本的인 差異點은 個人과 Nation(國民·民族)과의 關係에 對한 態度에 있다고 하겠다. 西歐型 내셔널리즘은 主觀說 或은 主-客觀說에 根本的으로 立脚한 데 對하여 非西歐型 내셔널리즘은 客觀說에 立脚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兩者는 내셔널리즘의 概念上에 差異를 나타낸다. 즉 西歐에 있어서 Nation(國民·民族)의 概念은 個人主義(Individualism)에 바탕하여 個人을 最高의 價値擔持者로 보고, 그러한 個人들의 自由로운 意志에 依한 團結로 본다. Nation(國民)이란, 契約과 投票속에 表現된 個人的 意志에 依한 市民의 團結로 보며 따라서 法律的 合理的 市民權이 가장 重要視된다. 西歐의 내셔널리즘은 Nation(國民)의 權利를 個人的 權利에 從屬됨을 要求한다. 즉 Nation의 權利는 個人的 權利에 依하여 制禦되어야 한다는 普遍的 原理위에 根本的으로 立脚하고 있다.

非西歐에 있어서 Nation(民族)의 概念은 有機體的 全體로서의 民族共同體(Volksgemeinschaft)속에 Nation을 보려는 傾向이 強하다. 따라서 Nation을 構成하고 있는 個個人的 價値보다 集團全體의 價値가 優先된다. 個人的 權利는 Nation全體의 權利에 依하여 制禦되며 個人的 權利는 Nation의 權利가 確保되어야 保障된다는 觀念이 強하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의 概念에 對한 위의 差異는 두 類型의 내셔널리즘이 發生하였던 歷史的 基盤 및 發生의 形式이 各已 달랐다는데 起因한다는 事實을 看過하여서는 아니된다. 西歐내셔널리즘은 그 特有的 歷史的 土壤——古代로부터 西歐의 思想的 基流를 이루어 近代에 까지 發展하여 온 自然法思想이나 基督教思想 속에 內包된 合理的 倫理的인 個人主義思想的 發達, 東洋의 專制的 國家와는 다른 特有的 原理와 構造를 가진 中央集權的 統一國家의 樹立, 資本主義經濟의 發達, 市民階級の 擡頭等——위에서 發生하였다. 또 그 發生의 形式에 있어서도 自國內의 權威에 對한 個人的 解放이라는 內生的 自力에 依하여 發生하였다.

이에 反하여 非西歐 내셔널리즘은 內面的 自覺에 基礎한 個人主義의 發生을 抑壓하는 權威的 閉鎖的 社會를 基盤으로 發生하였고, 그 發生의 形式에 있어서도 外國의 支配에 對한 抵抗으로부터 出發하였다. 따라서 非西歐 내셔널리즘은 民族이라는 集團全體의 解放과 獨立이 個人的 自

由보다 優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非西歐가 獨立을 獲得한 다음에도 그 政治的 經濟的 幼弱性으로 인한 強大富國에의 강한 依存, 東西冷戰의 最前線이라는 地理的 位置 等은 獨立을 實質的으로 危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特殊한 條件과 基盤은 非西歐 내셔널리즘으로 하여금 個人的 自由의 實現 보다 우선 集團全體로서의 〈民族〉에 力點을 두게 하는 것이었다. 非西歐 내셔널리즘의 課題와 苦惱는 如何히 集團全體로서의 民族의 統一과 獨立을 維持하면서 同時에 個人的 自由를 實現하느냐에 있다.

또 내셔널리즘의 發現의 時期에 있어서도 西歐와 非西歐는 差異가 있다.

西歐내셔널리즘은 그 前期인 集權的 統一國家의 成立期로부터 19世紀中葉까지 通算하여 적어도 三百餘年の 긴 歷史를 가졌는데 反하여 非西歐내셔널리즘의 歷史는 겨우 最近의 一世紀未滿에 不遇하다. 내셔널리즘은 近代의 意識과 近代化에로의 歷史的 過程의 產物임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近代意識의 覺醒과 傳統의 秩序의 改革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의 經驗의 日淺性은 非西歐 내셔널리즘으로 하여금 흔히 그 發現과 發展過程에 있어서 逆行·昏迷의 現象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西歐와 非西歐의 내셔널리즘은 그 主된 推進勢力에 있어서도 差異가 있다. 前者에 있어서는 政治的·經濟的으로 有力한 中産知識層이었고, 特히 英國에서는 그들의 大部分이 〈清教徒〉였다. 後者に 있어서는 地域에 따라 또 植民本國의 統治政策에 따라 반드시 一定치 않으나 大體로 中産階級이 欠如되고 土着의 傳統의 上層階級과 少數의 西歐式 教育을 받은 知識人, 學生, 軍人의 主導下에 大衆의 巨大한 힘이 動員된다는 것을 共通의 特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셔널리즘 推進勢力의 差異는 내셔널리즘의 性格 그 自體를 規定하는 것이다. 即 西歐내셔널리즘은 主로 穩健한 中産知識階級에 依하여 推進되었기 때문에 比較的 健全하고 安定된 方向으로 發展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54)</sup>. 이에 反하여 健全한 中産知識階級을 欠如한 非西歐 내셔널리즘의 運動은 그 振幅이 極端의이므로 安定성과 健全성을 欠하기 쉽다. 非西歐내셔널리즘의 運動은 그 에너지를 中産知識階級으로부터가 아니고 人口의 壓倒的 多大數를 차지하고 있는 極貧大衆으로부터 提供받고 있는데 이 巨大한, 그러나 元來가 未定形의 大衆에게 加해지는 指導層의 性格과 能力에 따라 그 方向은 極히 不確定的이다.

또 두 類型의 내셔널리즘은 그 發展의 樣相에 있어서도 對照的이다. 西歐내셔널리즘은 적어도 三百餘年の 긴 歲月에 걸쳐 着實히 段階的으로 發展하였다. 即 E. H. Carr의 第一期의 〈國王〉의 내셔널리즘期에서는 政治的·經濟的·文化的인 〈集權的 統一〉을, 第二期의 〈市民的〉 내셔널리즘期에서는 〈民主的 自由〉를, 第三期의 大衆내셔널리즘期에는 〈經濟的 分配의 平等〉의 諸課題를 段階的으로 解決하면서 發展하였다. 이에 反하여 西歐라는 外部의 刺戟에 依하여 觸發된

54) J. Lukacs는 中産階級의 內面的自覺性, 穩健性, 正義性, 自由性 等に 관하여 새로운 解釋을 하고 있다. cf. J. Lukacs; The Passing of Modern Age, (Harper and Row, Inc.) 1970. Dialogue; vol. 6. 1973 No. 1. The Bourgeois Interior, by J. Lukacs. pp. 89—96.

非西歐 내셔널리즘은 大體로 第一期를 欠하고 第二期와 第三期으로 거의 同時에 突入하는, 말하자면 重疊的인 諸段階의 同時的 發展을 하였다. 換言하면 中世에서 近代와 現代으로 急激히 내던져진 것이다. 이에 따라 非西歐내셔널리즘은 ① 大體로 西歐의 第一期的 要素를 欠하고 獨自的인 土着的 要素에 第二期的 要素가 加味되고 第二期的 要素가 成熟되지 않은 채 第三期的 要素가 加味된다는 錯雜한 性格을 띠게 되며, ② 西歐가 長久한 歲月을 所要면해서 分명한 여러 段階를 거쳐 段階的으로 解決하였던 諸課題를 段階的으로가 아니라 同時的으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에 西歐와는 다른 特徵과 그 課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非西歐 내셔널리즘은 오랜 傳統的인, 停滯的인 社會的 基盤을 實質的으로 保存한 채 植民地支配로부터의 獨立과 함께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인 <集權的 統一>과, <民主的 自由> 및 <經濟的 分配의 平等>을 段階的으로가 아니라 同時的으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政治的으로 是 國民的 統一과 民主的 自由, 經濟的으로는 資本蓄積과 分配의 平等, 換言하면 政治的으로는 絕對主義와 民主主義, 經濟的으로는 重商主義와 產業主義, 여기에 더하여 社會主義의 問題를 段階的으로가 아니고 同時에 實現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一種의 二律背反的인 디렘마에 直面하고 있다><sup>55)</sup>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디렘마를 西歐와는 달리, 權威的 專制主義的 支配下에서의 社會的 調和라는 傳統을 가진 歷史的 基盤위에서, 西歐내셔널리즘 發生時代와는 달리, 人口의 爆發, 無慈悲한 國際的 生存競爭, 原子戰 等の 무서운 時代的 狀況下에서 解決하여야 한다는 事實은 非西歐 내셔널리즘으로 하여금 西歐의 方法에 依하지 않는 非西歐 特有의 어떤 非常的 過渡期的 方法에 依據치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西歐내셔널리즘의 發生을 可能케 하였던 諸條件을 未備한 段階에 있는 非西歐에서는, 窮局的으로는 M. Weber 의 <傳統的 支配>로부터 <合理的 支配>에로의 過渡期的 過程에서 가장 適合하다고 하는 <Charisma 的 支配><sup>56)</sup>에서 그 解決方法을 求할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西歐와는 다른 歷史的 基礎, 條件, 西歐와는 다른 特殊한 狀況下에서 出發하였던 非西歐내셔널리즘은 그의 歷史的 <中世>로부터 단숨에 <近代>와 <現代>으로 突入하여 <歷史的 時代的 均質化>의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겪어야 할 陣痛과 苦悶을 하고 있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Louis L. Snyder (ed.); The Dynamics of Nationalism, 1964 (D. Van Nostrand Co., Princeton, N. J.)
- 2) Louis L. Snyder; The Meaning of Nationalism (New Brunswick, N. T.) 1954.
- 3) C. J. H. Hayes; Essays on Nationalism, (N. Y.) 1926.
- 4) C. J. H. Hay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Modern Nationalism, 6th ed. 1959(N. Y.)

55) 板垣與一, 上掲書 p. 89

56) M.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Bd. I. Grundriss der Sozialökonomik, Apt. III, 1921



- 5) Nationalism; A Report by A Study Group of Royal Institution of Intrnational Affairs. London. 1939
- 6) Elie Kedourie; Nationalism and certain Ideas in the philosophical Tradition of Europe, 1960 (N. Y.)
- 7) Roberto Michels; Der Nationalismus, Prolegomena zu seiner soziologischen Analyse, 1929(München)
- 8) F. Fertz; Nationality in History and Politics. A Study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ety of National Sentiment and Character, 1944(N. Y.)
- 9) Rupert Emerson; From Empire to Nation. 1962(Havard)
- 10) Rupert Emerson; Problem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vol. xxlv, December. 1953
- 11) Boyd C. Shafer; Nationalism, Myth and Reality. 1955(N. Y)
- 12) E. H. Carr; Nationlism and After. 1945 (Macmillan)  
大窪愿二譯; 나시오나리즘의 發展. 미즈구書房 昭和42年
- 13) Hans Kohn;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1956 (N. Y)
- 14) Andrew Browning(ed.); English Historical Documents 1160—1714 III, London.
- 15) C. J. H. Hayes, Nationalism. A Religion. 1963 (Macmillan)
- 16) E. Reischauer, J. Fairbank, A. Craig;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 7 the printing 1971(Charles E. Tuttle Co., Tokyo)
- 17)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ie Geist des Kapitalismus. Gesamelte Aufsätze der Religion Soziologie, I. 1922. tr. by Talcott Parson;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58. N. Y. Scribner.
- 18) Hans Kohn; Orient und Oxident, Weltpolitische Bücherei. Band 24. 1931 (München)
- 19) Ball, W. Macmahon;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 1951(Melbourne Univ. press)
- 20) Claud, E. Welch(ed.); Political Modernization, 1967. (Wadsworth Publishing Co., California)
- 21) J. H. Boeke;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of Dual Societies as Exemplified by Indonesia, 1953(N. Y.)
- 22) J. S. Furnivall; Netherlands India, A Study of Plural Economy, 1936. (Cambridge)
- 23) M.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Bd. I. 1921
- 24) J. Lukacs; The Passing of Modern Age(Harper and Row, Inc.) 1970, Dialogue. vol. 6. 1973. No. 1. The Bourgeois Interior, by J. Lukacs. pp. 89—96.
- 25) 白井二尙; 民族發達の 諸段階, 哲學研究 第326號 1947.
- 26) 나시오나리즘의 研究; 世界經濟調查會編, 昭和32年.
- 27) 桑原武夫; 프랑스革命의 研究, 岩波書店 1970.
- 28) 橋川文三; 나시오나리즘 — 其의 神話와 論理, 紀伊國屋新書 1968.
- 29) 社會學 第五卷 民族와 國家; 東京大學出版會, 1970.
- 30) 新東亞 1973年9月號 趙璣濬, 韓國民族主義의 課題.  
" 李用熙, 現代民族主義.
- 31) 上原專祿; 民族의 歷史的自覺, 創文社 昭和28年.
- 32) 石橋秀雄; 아시아史의 流れ, 山川出版社, 1973.
- 33) Lin Yutang (林語堂); The Importance of Living (Royal & Hitchcock, N. Y. 1937) 金秉喆譯; 生活의 發見, 乙酉文化社, 1973.
- 34) 板垣與一; 아시아民族主義와 經濟發展, 東洋經濟新報社, 1962.

